

2019년 6월 14일

KIWOOM *Weekly*

FOMC와 트럼프 재선 출정식

한국 증시는 미국 FOMC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에서 공개할 대선 정책에 의해 움직일 것으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에 있을 대규모 2020년 대선 출정식을 통해 자신의 대선 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 여기서 외교 및 경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 이란, 북한과 관련되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경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

한편, 19일 발표되는 미 FOMC 결과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있을지 주목. 하지만, 6월 4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덜 비둘기적 발언'이 예상. 주식시장은 이를 빌미로 매출 출회 가능성이 높음. KOSPI는 2,050~2,130pt로 예상, KOSDAQ은 710~740pt 전망.

키움증권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

ehdwl@kiwoom.com

IRA 김세현

02) 3787-5150

saehun.kim@kiwoom.com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라할만한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한국 증시는 주 초반 미국-멕시코 무역분쟁 이슈 완화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제한. 현지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까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극적으로 멕시코와 협상 합의에 이르면서 월요일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는 안도랠리를 보임.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 불편한 관계이지만 협상은 타결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점도 상승요인.

하지만 6월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제기된 점과 국제유가 급락이 이어지는 등 상품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상승 제한 요인이었음. 이 영향으로 한 때 2,100pt를 상회 했던 KOSPI지수는 23.08pt(+1.11%) 상승한 2,095.41pt, KOSDAQ은 5.72pt(+0.80%) 상승한 722.25pt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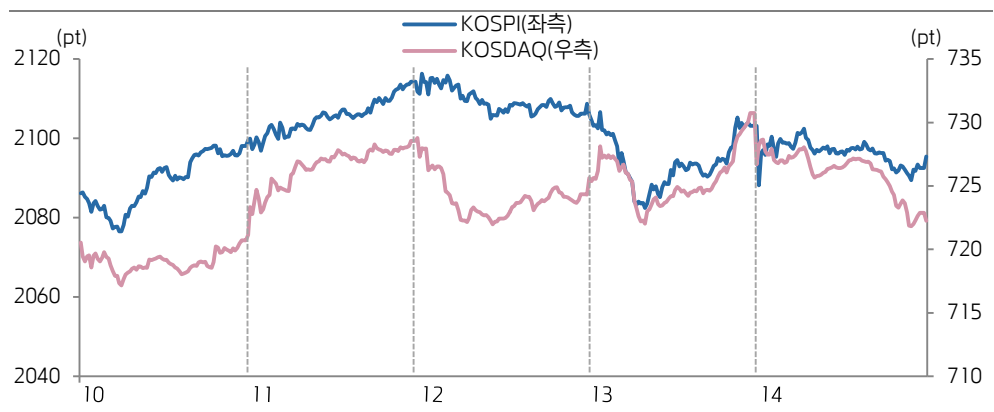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건설(+5.30%), 기계(+4.64%), 음식료(+4.18%)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운수창고(-1.64%), 전기전자(-0.52%), 전기가스(-0.16%) 등이 하락.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의약품(+6,335억원)과 증권(+393억원)을 중심으로 134억원을 순매수를 기록, 기관은 운수장비(+880억원), 유통(+795억원)을 중심으로 4,316억원 순매수. 주체별로는 기금(+6,499억원)이 순매수한 반면, 증권(-1,168억원)과 사모펀드(-739억원)가 순매도한 점이 특징.

KOSPI, KOSDAQ 투자지표 변화(12개월 Forward 추정치)

월/일	KOSPI		KOSDAQ	
	PER(배)	PBR(배)	PER(배)	PBR(배)
6월 10일	10.80	0.83	15.28	1.93
6월 11일	10.87	0.83	15.30	1.93
6월 12일	10.86	0.83	15.06	1.91
6월 13일	10.83	0.83	15.12	1.91

자료: Quantiwise, 키움증권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 경제지표 동향 및 이벤트 일정

1. 주간 펀드 플로우

로이터 리퍼(Lipper) 6월 12일 기준으로 자금 유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주식 44억 달러 유입
채권 72억 달러 유입
사모 7.8억 달러 유입
MMF 129억 달러 유입

ETF 주식펀드

94억 달러 유입.

그 중 SPY(S&P500 추종 ETF, +36억 달러)와 QQQ(NASDAQ100지수 추종 ETF, +16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음. 한편 IWM(Russell 2000지수 추종 ETF, -3.3달러)와 XLK(S&P500 IT섹터 지수 추종 ETF, -3.0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가장 컸음.

ETF 채권펀드

77억 달러 유입.

그 중 SHV(iShares 단기 미국채 추종 ETF, +34억 달러), LQD(iShares 투자등급 회사채 추종 ETF, +14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던 반면, SHY(1~3년 만기 미국채 추종 ETF, -30억 달러)와 BLKN(Invesco 장년 대출 추종 ETF, -1.26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가장 컸음.

주식펀드

49억 달러 유출.

미국 주식펀드는 25억 달러 유출, 미국-제외 주식펀드는 24억 달러 유출. 미국에서는 대형주(-9.02억 달러)와 중형주(-5.13억 달러)의 자본 유출이 가장 컸음.

채권펀드

5.14억 달러 유출.

밸런스 펀드(-18억원)와 플렉시블 펀드(-4.67억원)의 유출이 가장 컸으며, 투자등급 회사채 펀드(13억 달러)와 하이일드 펀드(+3.68억원)의 유입이 컸음.

2. 미국 기업 실적 전망

팩트셋의 6월 7일 Earnings insight 보고서 주요 내용

2Q19 미국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월 말 당시 추정치(YoY -0.4%) 보다 소폭 하향 조정됨. 매출 추정치는 전년대비 4.0% 상승할 것으로 예상. 2Q19 가이드스가 부정적인 기업은 86개, 긍정적인 가이드스를 낸 기업은 25개임.

지난 한 달간 2Q19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산업 및 소재. 반면 2Q19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은 에너지.

향후 미국 S&P500 기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음.

3Q19 매출 전년대비 +4.1%, 영업이익 전년대비 +0.2%

4Q19 매출 전년대비 +4.5%, 영업이익 전년대비 +7.0%

1Q20 매출 전년대비 +6.2%, 영업이익 전년대비 +10.5%

2Q20 매출 전년대비 +6.8%, 영업이익 전년대비 +12.9%

현재 벨류에이션 현재(6월 7일 기준) 12M Fwd. 16.2배
(지난 5년 평균은 16.5, 10년 평균은 14.8배)

S&P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목표의 컨센서스는 3,210.74pt임(12.9% 상승 여력).

업종별로는 에너지(+25.3%)의 상승여력이 가장 높고, 유틸리티(+0.4%)와 부동산(+2.0%)의 상승여력이 가장 낮음.

3. FOMC 프리뷰(6월 18~19일)

6월 FOMC에서 정책 금리는 2.25~2.50%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지에 주목하고 있음.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양호했던 만큼 향후 미국 경제 전망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도표는 지속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으로 내년 금리 한번 인상에서 동결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 전체적으로 FOMC는 비둘기파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미 연준의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GDP 성장률	2.1(2.3)	1.9(2.0)	1.8(1.8)	1.9(1.9)
실업률	3.7(3.5)	3.8(3.6)	3.9(3.8)	4.3(4.4)
PCE 물가	1.8(1.9)	2.0(2.1)	2.0(2.1)	2.0(2.0)
근원 PCE 물가	2.0(2.0)	2.0(2.0)	2.0(2.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 괄호 안은 2018년 12월 전망치의 중간값.

4.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출정식(6월 18일)

지난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2020년 재선에 대한 출정 소식을 전하고 6월 18일 플로리다 출정식(한국시각 19일 오전 9시)을 열 계획을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올랜드 2만석 규모 암웨이 센터에서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펜스 부통령, 그리고 부통령의 아내 캐런 펜스와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제로 랠리에 참여할 예정. 트럼프는 "우리가 해낸 모든 이벤트 중 이 티켓이 가장 인기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만큼 대규모 랠리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음.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전략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관련 성과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고 나서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 여러 번 갱신했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50년래 최저치를 기록. 또한 감세정책에 힘입어 미국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

〈외교 정책〉


















트럼프는 미국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외교 정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는 중국의 불법 기술 이전에 대한 강경한 태도,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멕시코에게 압력을 가해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룬 점, 추가적으로 북한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회 개최하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 받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임.

시장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또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이 높아 보이고 민주당 유력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줄리언 조"라는 별명을 짓는 등 견제가 시작됨. 이번 랠리를 통해 무역 및 대-이란 관련 새로운 내용이 언급될 경우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06.17~06.21)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06월 17일	월	미국	뉴욕주 제조업지수	6월	12.0	17.8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67.0	66.0
		유로존	임금상승률 YoY	1분기	NA	2.3%
06월 18일	화	중국	주택가격지수 YoY	5월	NA	10.7%
		독일	생산자물가지수 YoY	5월	2.4%	2.5%
			ZEW 서베이 예상	6월	-5.0	-2.1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YoY	5월	1.2%	1.2%
			ZEW 서베이 예상	6월	NA	-1.6
			무역수지	4월	NA	22.5b
		미국	주택착공건수 MoM	5월	0.3%	5.7%
			건축허가 MoM	5월	0.8%	0.2%
		정치	영국 보수당 당대표 선출 투표(18~20일)-최종 2인 선출			
		중앙은행	BOK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06월 19일	수	일본	수출 YoY	5월	-7.4%	-2.4%
			수입 YoY	5월	1.0%	6.5%
		유로존	경상수지	4월	NA	24.7b
			건설생산 MoM	4월	NA	-0.3%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5월	2.0%	2.1%
			생산자물가지수 YoY	5월	1.7%	2.1%
			주택가격지수 MoM	4월	NA	1.4%
		중앙은행	FOMC(18~19일)			
		발언	파월 연준 의장 발언			
			BOJ 구로다 총재			
06월 20일	목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5월	NA	0.6%
		일본	전체산업 활동지수	4월	0.7%	-0.4%
			공작기계 수출 YoY	5월	NA	-27.3%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6월	-6.4	-6.5
		영국	소매판매 MoM	5월	-0.8%	0.0%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6월	10.5	16.6
			선행지수	5월	0.1%	0.2%
			경상수지	1분기	-123.5b	-134.4b
		정치	EU 정상회의(20~21일), 이탈리아 정부부채 관련 발금 논의			
		중앙은행	BOE 통화정책회의			
			BOJ 통화정책회의(19~20일)			
		발언	카니 영란은행 총재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			
06월 21일	금	실적	미국: (장 마감 후) 레드햇			
		한국	~20일까지 수출 YoY	6월	NA	-11.7%
			~20일까지 수입 YoY	6월	NA	-0.1%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YoY	5월	0.7%	0.9%
			제조업 PMI	6월	NA	49.8
		독일	제조업 PMI	6월	44.6	44.3
			서비스업 PMI	6월	55.4	55.4
		유로존	제조업 PMI	6월	48.0	47.7
			서비스업 PMI	6월	53.0	52.9
		미국	제조업 PMI	6월	50.6	50.5
			서비스업 PMI	6월	51.0	50.9
			기존주택매매 MoM	5월	2.1%	-0.4%
		발언	(FED LISTENS)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팟캐스트)			
실적	미국: (장 시작 전) 카맥스					
06월 22일	토	정치	영국 보수당 당원 투표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지역	Board Member					
이름	제롬 파월	리처드 클라리다	랜들 웰스	라엘 브레이너드	마셜 보우먼	
						
성향	중도 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중립	
투표권	O	O	O	O	O	
발언일자	6월 4일	6월 4일	5월 7일	6월 5일	2018년 5월 15일	
발언 내용	경제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것. 한편, 새로운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연준은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함.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뀐다면 좋은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음. 현재 경제 상태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	미국의 근원 물가가 목표치인 2.0%를 오랜 기간 동안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문제라고 보지 않음. 1.8%나 2.0%나 비슷하다고 생각.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한 정책조정에 준비되어 있음. 무역정책은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부과된 일부 규제가 소규모 은행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지역	보스턴	뉴욕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이름	에릭 로젠그렌	존 윌리엄스	로레타 매스터	제임스 블라드	에스터 조지	패트릭 하커
						
성향	매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매파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	O	x	⊙	⊙	
발언일자	5월 21일	6월 7일	5월 3일	6월 3일	5월 14일	5월 20일
발언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현 연준의 정책은 약간 완화된 연준은 정책과 경제 전망에 연준 정책은 적절하며, 완격한 경기둔화 시 일종의 여전히 전망은 긍정적이며 통화정책을 로부터 경정 화적이고 물가는 무역 관세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 수 벽히 지지. 물가가 다소 낮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통화정책은 적절함. 무역과 해서는 안됨. 인간의 경험 가 부과될 경우 더 빠르게 익을 곡선 역전을 이유로 지만 안정적인. 지표를 살 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 대외 경제 문제가 잠재적 과 과거의 행동이 반영 되 상승할 수 있음. 금리를 당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떠보고 근원적 상황을 이해할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인 위험으로 보임. 인플레이 어야 함. 올해 최대 한 차 장 바뀌어 할 필요성은 없 것.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할 필요 있음. 수도 있음. 이션 우려는 필요가 없다고래 금리 인상 예상. 판단됨.
지역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댈러스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이름	닐 카시카리	찰스 에반스	로버트 카플란	토마스 바킨	메리 데일리	라파엘 보스틱
						
성향	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매파	비둘기파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		x	X	x
발언일자	5월 16일	6월 4일	6월 6일	5월 15일	6월 3일	5월 20일
발언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연준은 경제 확장 시기에 현재 통화정책에 편안함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음. 느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스가 타당함. 건강한 경제 뚜렷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 이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보지 못하고 있음. 경제 편 하기엔 너무 이름. 현재 상 성장을 볼 때 금리를 인하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함. 음. 9월 금리 인하가 현실 었던 수준 보다 낮아짐. 이 더맨탈은 지속해서 견조. 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에 반대하며, 통제되고 있 미국 경제지표, 미-중 무역이 되려면 무언가 사건이 게 다음 경제 하강 시기에 다리는 것을 선호. 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지켜봐야 함. 필요. 현재 통화정책은 중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공 금리 인하도 반대함. 립 수준임. 오랫동안 유지 간이 줄어들.

자료: 각 언론사, 키움증권. (투표권은 2019년 기준, X는 2019투표권 제외 위원, ⊙는 2019년 투표권 발생 인원)

3.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 FOMC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에서 공개할 대선 정책에 의해 움직일 것으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에 있을 대규모 2020년 대선 출정식을 통해 자신의 대선 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 여기서 외교 및 경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 이란, 북한과 관련되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경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

한편, 19일 발표되는 미 FOMC 결과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있을지 주목. 하지만, 6월 4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덜 비둘기적 발언'이 예상. 주식시장은 이를 빌미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음. KOSPI는 2,050~2,130pt로 예상, KOSDAQ은 710~740pt 전망.

날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요일별 주요 내용
06월 17일 (월)	금) 미국, 5월 산업생산 금) 미국, 5월 소매판매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견조한 소매판매 지표에 힘입어 상승 예상.. 월요일 한국 증시는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예상.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정식과 FOMC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상승 제한
06월 18일 (화)		월요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정식을 앞두고 관망 예상. 화요일 한국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기다리며 증폭 장세 전망
06월 19일 (수)	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출정식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을 앞두고 관련 보도 내용에 따라 등락 예상. 특히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마찰, 북미 관계 등 대외 정책 및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출 듯. 수요일 한국 증시는 한국 시각 오전 9시에 시작하는 트럼프 연설 내용에 따라 등락 예상
06월 20일 (목)	수) FOMC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따라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덜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가능성이 높아 오후 들어 매물 출회 전망. 목요일 한국 증시는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조정 예상
06월 21일 (금)	목) BOE 통화정책회의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 연준의 FOMC에 이어 BOE, BOJ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주목할 듯. 특히 비둘기적인 내용 언급 기대감이 높아져 있어 이보다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매물 출회 예상. 금요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 변화 예상